東大新聞

永祿 榮 壽永 又 哲 發行人 黃 曾 方 洪 編輯人 吳 金 沈 編輯局長 主幹 編輯部長 印刷人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財團에서 혜화관 완전引受

5日, 理事長室서 이양서 전달

7年만에 總 7억원으로 買入

敎育用 토지 내역 처음 發表하기도

「혜화관 건물, 교육용 기본재산 이양 전달식」이 지난5일 오전9시 본교 朴淇宗이사장, 黃壽永총장, 李東林대학원장을 비롯한 각처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거행된 본 전달식에서 朴이사장은 黃총장에게 혜화관 건물 이양서와 아울러 학교운영을 위한 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는데 이는 黃총장 취임을 계기로 신임총장이 학교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학사행정을 펴나갈수 있도록 한다는 후원의 뜻으로 이사장이 직접 학교에 지원한 것이다.

◇本校재단법인에서는 븐래 불교중앙교단소유재산이었던 혜화관을 7년여에 걸쳐 7억원을 불입하여 완전히 인수하였다. <사진은 지난 5일에 있었던 혜화관 이양서 전달식 광경>

學校위한 재단으로서의 面貌 갖춰

본교의 혜화관은 1단7백여평의 대지중 3천6백여평위에 세워진 6층건물인데 이것은 본래 財團法人 불교중앙교단 所有財産 불교 조계종으로 부터 연원에 매입할것을 계약하고 7년여에 걸쳐 불입하여 이번에 등기를 완료하게 된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혜화관을 매입한 가격인 7억원은지난70년 대한 불교 조계종 출판쳐에서 이건물을 처음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액수인데, 여기에는 학교, 종단, 동창회의 깊은 관심과 도움이 매우 큰 역할을하였다.

법인 이사회에서는 이미 법인의 수입용 기본재산을 본교의 교육용 실습재산으로 전환한바 있는데 현재 校地및 연습림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며 그위치는 다음과 같다.

▲校地…서울특별시 성북구수유동산164의1(임야 2만9천8백50평) ▲淵源林…강원도명주군연곡면삼산리산4(임야 2백29만1천6백70평), 산1의2(임야 2백2만2천9백30평), 경기도양주군와부면진중리산1의1번지의 8필지(임야 2백46만4천1백40평)〈계 6백77만8천7백40평〉

이토써 교육용 재산으로서의 토지는 7백여만평에 이르며, 이는 전국적으로 볼때 본교가 가장 넓은 토지를 확보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유휴지로 묶여있는등 이의 실질적인 활용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교육용재산의 활용및 관리의 대학의 입장이 본도되면서 학생 동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 올부터 大學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本校·慶州大 후기說 관련

前期 고수할 방침 세워

학교당국은 항간에 나도는 本校와 경주대의 후기전환문제와 관련 『전국 대학의 실무자급 회의인 「대학교육 연합회」에서 이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교부의 직권행사가 없는 한 본교와 경주대는 전기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기 전환문제는 얼마전 각 일간지에 문교부와 각 대학이 심해 동문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해 올부터 본교는 전기를 고수할 방침을 세워 놓았다는 것이다.

各大學院生 후기 모집

필기시험및 面接등으로 전형

본교 각대학원의 「후기학생모집요강」이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대학원

과정및 모집학과는 석사과정및 박사과정이 각각 인문계, 사회계, 자연계로 나누어 모집하게 된다.

응모자격은 학사·석사학위소지자및 취득예정자이고 시험과목은 석사·박사과정 공히 전공, 영어, 면접을 치르게 된다.

원서교부는 오는 7월 26일 오후1시까지, 원서접수는 23일부터 26일오후1시까지 본대학원 교부과에서 하게 된다.

입학시험은 오는 7월3일 오후1시 본대학원에서 실시하게 되며 입학지원시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입학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및 성적증명서, 명함판사진 1매, 재직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다.

◇행정대학원

모집학과및 전공은 행정학과의 6개전공, 안보행정학과의 4개전공, 안전관리학과의 1개전공이며, 응모자격은 석사과정은 졸신학과 석사학위소지자이고 연구과정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및 면접이고, 전형 추천한 자중 안전관리학과지망생은 석사과정및 연구생 과정 共히 등록금액의 50%를 면제(사업체경비, 입학금제외)하며 그외에도 기타 각종의 장학 특전이 있다.

◇경영대학원

모집과정및 전공은 석사 및 연구과정이며, 경영학과의 6개전공, 부동산학과의 1개전공, 노사관리 학과의 1개전공이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구두시험및 면접이다.

◇교육대학원

모집학과및 전공은 교육행정학과 3개 전공, 교육과 교육학과 13개전공인데, 物理敎育, 化學敎育, 生物敎育, 一般社會敎育의 4개전공은 이번 학기에 신설된 것이다.

응모자격은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이고 전형일시및 장소는 29일 오후2시 同대학원 교무과이며 원서교부및 접수는 18일부터 24일 오후5시까지이다.

◇교육대학원

모집학과및 전공은 교육과 교육학과 3개 전공, 교육과 교육학과 13개전공인데, 物理敎育, 化學敎育, 生物敎育, 一般社會敎育의 4개전공은 이번 학기에 신설된 것이다.

응모자격은 석사과정은 학사학위 소지자, 연구과정은 석사과정에 준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이고 전형일시및 장소는 29일 오후2시 同대학원 교무과이며 원서교부및 접수는 18일부터 24일 오후5시까지이다.

教大院「동락전」예정

13日부터 17日까지

「제2회 동락미술전시회」가 교육대학원 주최로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일간 세종문화회관 1、3 전시실에서 열릴예정이다.

미술품을 전공하는 교육대학원생 1백50여명을 전시하게 되는데 작품의 규격은 大品과 小品의 두종류로나누어 大品은 80호에서 40호정도의 크기로 제작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 전시되는 작품중에는 지난81년, 제30회 국전에서 서양화 부문 특선을 차지한 안호범氏와 동양화 부문특선의 최용유氏를 비롯한 다수의 입선수상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되고 있으며 특히 국전추천작가인 이한우, 한영식氏의 작품들도 전시하게 되어있어 대단히 의의있는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동락전」 개장일은 13일 오후6시, 同전시회에서 가질 계획이다.

축구부「서울시種別蹴球」준우승

결승전서 高大에 2:1로 憤敗

본교축구부는지난 4일 효창구장에서 열린 「제 대회」대학부 결승에서강호 高麗大를 맞아 선전하였으나 2-1로 분패해 뿌리 깊은 우승을차지하였다.

이날경기는 쳐음 올부터치러지는 올부터치러지는 공식경기로 전반 14분께 고려에 선취점을 내주고 맹렬한 반격을 펼친 끝에 전반 34분 포워드 金貞植의 어시스트를 받은 許在福이 동점을 만들었으나 후반 25분 밀어 넣혔으나 후반 25분 고려의 李爲鍾에게 결승골을 허용, 석패 했다.

한편 본교는 예선리그에서 전승을 거두고 결승토너에 올라 경희대, 중앙대를 맞아 부지를 앞제운짜 임새 있는 팀웍과 韓泰蓍 등의 수훈에 힘입어 각각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다.

금년들어 축구부의 결승진출에 이은 준우승은 이번이 처음이다.

學徒護國團規 일부改正

運營委員會 소집 규정 緩化하기로

학도호국단 학교지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24일 학도호국단규를 일부 개정, 문교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호국단규의 내용으로는 학생제대는 각급 제대별로 학생장 1인을두고 최고제대에는 부학생장 2인(본교1명, 경주1명)을 둘수있다는 현행제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학생장에게 1인의 부학생장을 둘수있다는 항목을 첨가하여 학생운동이 좀더 원활한 활동을 할수있게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장만이 소집할수있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 제적5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수 있게하며 회의소집요건을 약간 완화하였다또한문제가되어 왔던 1학년 계열별 모집의 경우의 선거권도 분류학과별로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개정하였다.

한편 학생생활과에서는 많은 학생이 있는 학과의경우 투표권이 특이라는 학생들간의 손분은 낭설이라고 밝히며 한학년 1학과에는 1투표권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학도호국단 학교지도위원회에서는 各학과 부학생장제도의 설치및 운영위원회 소집규정을 약간 완화하였다. <사진은 운영위원회의 광경>

3학년 進級時 18%脫落

卒業 定員制 골격은 계속유지

교무당국은 『80년 7·30 교육개혁 조치이후 실행되고 있는 졸업정원제의 골격은 현재 유지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도 변화할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해 향간에 나도는 「중도탈락이 없고 4학년 졸업시에 정원의 학생에 대한 수료를 인정한다」는 說을 부인하고 따라서 『81학번인 2학년화생들은 3학년 진급시 예정대로 초과정원의 18%가 탈락하게 된다』고 밝혔다.

당국은 또 정원의 탈락기준은 단대나 계열별이아니고 전체 학생을 원칙으로 탈락시킨다고 말하고 4학년 졸업시 3학년 진급시 18%의 학생을 제적시키고 다시 4학년진급시 2%, 나머지는 졸업시에 제적시키게된다고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이기준에 따르면 소위 인기학과라불리워 많은 학생이 몰려있는 경문학과, 통계학과, 경영학과등에서는 불가피하게 많은인원의 탈락자가 나올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청된다하겠다.

한편 당국은 종전의 학사경고, 제적등의 학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학사 내규의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관련기사3面>

대학원 특강

現代行政學의조류

대학원 특강이 오는12일 오전10시 대학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을예정이다.

「현대 行政學의 조류」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는 본특강에서는 연사에 조석준서울大 행정대학원교수) 박사를 초청,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듣게된다.

8代 호국단 간부 選擧

10日부터 22日까지 실시

82학년도 제8대 학도호국단 총·부학생장 선거및 단대별 학생장 선거일정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로 확정 발표되었다.

학생처에 따르면 총·부학생장선거 및 단대학생장선거는 6월22일 오전10시에 소강당을 비롯한 각대학 지정강의실에서 실시되며 (2부대는 6월21일 오후5시30분) 학과및 학년학생장 선거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데 시간과 장소는 각대학 학과별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이번 계획안의 주요골격은 각급 제대별로 학생장 1인을두고 최고제대에는 부학생장 2인(본교1명, 경주1명)을 둘수있다는 현행제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학생장에게 1인의 부학생장을 둘수있다는 항목을 첨가하여 학생운동이 좀더 원활한 활동을 할수있게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장만이 소집할수있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 제적5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수 있게하며 회의소집요건을 약간 완화하였다또한문제가되어 왔던 1학년 계열별 모집의 경우의 선거권도 분류학과별로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개정하였다.

한편 학생생활과에서는 많은 학생이 있는 학과의경우 투표권이 특이라는 학생들간의 손분은 낭설이라고 밝히며 한학년 1학과에는 1투표권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行大院 특강

정윤무교수 연사로

행정대학원 특강이 지난 4일 오후6시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었다.

「專門大學敎育의 基本課題」라는 연제로 개최된 이날 특강에서 연사인 정윤무(행정대학원장) 교수는 現代社會의 本質, 現代社會의 리이더쉽, 産業社會의 高等敎育 當面課題등에 대하여 강연했으며 현대사회에 대처해 나아가야할 대학인의 자질 행정과 대학, 대학원의 역할및 그에 따른 문제점등에 대하여 역설하기도 했다.

1학기 期末考査 일정

28日부터 7月10日까지

82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 일정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실시되는 것으로 확정 발표되었다.

이번 기말고사는 교련, 체육등 중간고사에서 제외된 과목도 포함해 실시되는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및 각 학년별 시험일정등의 상세한 사항은 7일에서 12일 사이에 시간표와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원 특강

現代行政學의조류

대학원 특강이 오는12일 오전10시 대학본관 교수세미나실에서 있을예정이다.

「현대 行政學의 조류」라는 제목으로 개최하는 본특강에서는 연사에 조석준서울大 행정대학원교수) 박사를 초청, 행정학의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듣게된다.

농대 勸農日 행사 盛況

1백여명 참석

농과대학 농학과와 농업경제학과에서는 지난 4日 時20분부터는 3백여평의논에다 모를 심기시작했으며 농학과 모를 심기시작했으며 농학과 모의 모심기 끝난후에는 농촌에서 마련한식사를 했으며 농학과와 농경과의 친선 축구대회도 있었다.

8代 호국단 간부 選擧

10日부터 22日까지 실시

82학년도 제8대 학도호국단 총·부학생장 선거및 단대별 학생장 선거일정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로 확정 발표되었다.

학생처에 따르면 총·부학생장선거 및 단대학생장선거는 6월22일 오전10시에 소강당을 비롯한 각대학 지정강의실에서 실시되며 (2부대는 6월21일 오후5시30분) 학과및 학년학생장 선거는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데 시간과 장소는 각대학 학과별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이번 계획안의 주요골격은 각급 제대별로 학생장 1인을두고 최고제대에는 부학생장 2인(본교1명, 경주1명)을 둘수있다는 현행제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학생장에게 1인의 부학생장을 둘수있다는 항목을 첨가하여 학생운동이 좀더 원활한 활동을 할수있게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장만이 소집할수있는 운영위원회도 운영위원 제적5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할수 있게하며 회의소집요건을 약간 완화하였다또한문제가되어 왔던 1학년 계열별 모집의 경우의 선거권도 분류학과별로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개정하였다.

한편 학생생활과에서는 많은 학생이 있는 학과의경우 투표권이 특이라는 학생들간의 손분은 낭설이라고 밝히며 한학년 1학과에는 1투표권이 주어진다고 발표했다.

黃총장등 1백여명 참석

농대 농학과 농업경제학과 농업경제학과 실험농장에서 黃總長을 비롯하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勸農日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오전10時 10分에 학교를 출발하여 11時에 농장에 도착했고 농장에서 모내기를 시작했으며 농학과 모의 모심기 시범도 있었다. 모심기가 끝난후에는 농장에서 마련한식사를 했으며 농학과와 농경과의 친선 축구대회도 있었다.

농연 제26회 돐잔치

상설전시장등에서

농어촌연구부의 「제26회 돐잔치」가 지난 6日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설전시장및 공대앞 간이운동장에서 있었다.

이날 잔치에서 구놀동우회 부회장 朱文秀씨는 기념식사를 통해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두려운 회원들간의 정으로 뚫고나가자」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기념식이 끝난후에는 선후배간에 농구, 배구, 발야구시합등 체육대회를 갖기도 하였다.

최장호君 돕기모금

學友들 적극참여해

사대 敎育學科 學生들은 불치의 病을 앓고있는 同科 4年에 재학중이던 前학생장 최장호君을 돕기위해 일일찻집을 개최 하력등 성금모금에 많은 노는 기울이고 있다.

同科 現學生長 이광현君에 따르면 29일있었던 일일찻집은 지난 축제기간동안 두상점을 개설해 얻은수익금 10만원으로 연것으로 他校生들을 비롯 本校生 1천2백여명의 모음으로 약 30만원정도의 이익을 올려 별도에게 기탁한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3학년대 학회장을 맡아 일하는등 학회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모범생으로 작년에 발병했었으나 치료비 문제로 막얼거지 못 계속 치료해도 이미 완치는불가능한 것으로판명되었으나 3개월정도 계속치료하면 學校생활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지난 4월20일 교수들의 기탁금 40여만원으로 강남시립병원에 입원 學友부비들의 모음으로 한달가량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지난 구로동 소재 하숙집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보리수

현대에 들어와서 여러가지 산업공해로 말미암아 시련을 받는 것이 한, 들이 아니다. 농산물대로 수은의 농도가 극심하다고 하고 가로수도 피해를 입고 물도 오염되어식수화하는데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다.

근자에는나무가있다. 숙청 정2품소나무가 그것이다. 속리산法住寺에 갈때마다인상적인 나무다. 어떻게 저토록 늠름하고 기품이 당당한 나무일까. 천연의 우아함을 모두 다 장양된 정2품소나무가 안으로부터 상처를 입고있기 때문에 오아시스를 만날때 隊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나무가 뿌리부터 잘자려며 터 잘자려며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워야 한다. 지나친 생각으로 나무를 보호한다고 철책을 치거나 보호함을 쳐서도 안될 것이다.

학문의 숲이 우거지려면 자연의 수림도 무성하게 팍짜여져야 할것이다. 간혹 나무가 부정없는 짓을 한다고 하여 나무에 상처준다는 것은 물을 고치다가 소를 죽이는 꼴이 아닌가.

스티랑카에 있는 보리수는 중생의 욕망을 위하여 항상 그 이파리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가. 나무여 무성하여 아미타불이 되어다오.

<睦 楨 培>

보리나무

○ ○

보리나무는 많은 제 어야할을 강조한것은 나무가 무성하고 창창하게 성장하여 인간에게큰이익을 주도록 염원한 것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환경을 안온하게 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이 부지런히 이루어져 제법 녹음을 맛보게 되었다. 다행한 일이다.

敎育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 및 專攻：碩士課程 및 硏究課程
①敎育行政學科：敎育行政·敎育經營·敎育財政
②敎科敎育學科：國語·地理·歷史·數學·倫理·美術·漢文·英語·體育·物理·化學·生物·一般社會
二、願書交付 및 接受：一九八二年 六月十八日(金)~六月二十四日(木) 午後五時
三、銓衡日時 및 場所：一九八二年 六月二十六日(土) 午後二時 本 敎育大學院
四、銓衡 方法：書類銓衡 및 面接
五、特典：①公·私立敎職員 및 公務員 授業料半額、其他各種奬學金있음
②中等敎師 上級資格 및 無所持者 資格取得
電話(直) 269-8052、(交) 267-8131~9(224)

◎其他 자세한 것은 該當 大學院 敎務課에 問議할것

經營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 및 專攻：碩士課程 및 硏究課程
①經營學科：人事管理、生産管理、財務·稅務會計、市場管理、貿易學、電子情報處理
②不動産學科、③勞使管理學科
二、願書交付 및 接受：一九八二年 六月二十一日(月)~七月一日(木) 午後五時
三、銓衡日時 및 場所：一九八二年七月三日(土) 午後二時 本 經營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 및 面接
五、特典：公務員、敎職員、勞組幹部 및 女學生 奬學金있음
電話(直) 267-8140、(交) 267-8131~9(221)

行政大學院(夜間)

一、募集課程 및 專攻：碩士課程 및 硏究課程
①行政學科：組織管理·人事·財務·計劃·都市·開發
②安保行政學科：國防·公安·防衛産業·軍事戰略
③安全管理學科：安全管理
二、願書交付 및 接受：一九八二年 六月二十一日(月)~七月一日(木) 午後五時
三、銓衡日時 및 場所：一九八二年 七月三日(土) 午後二時 本 行政大學院
四、銓衡方法：書類銓衡 및 面接
五、特典：公務員奬學金 및 安全管理學科 特別奬學金있음
電話(直) 267-8574(交) 267-8131~9(218)

大學院(晝間)

一、募集課程 및 學科
①碩士課程：人文系：九個學科 社會系：十個學科 自然系：十六個學科
②博士課程：人文系：七個學科 社會系：六個學科 自然系：十一個學科
二、願書交付：一九八二年 六月七日(月)~六月二十六日(土)
三、願書接受：一九八二年 六月二十三日(水)~六月二十六日(土) 午後一時
四、銓衡日時 및 場所：一九八二年 七月三日(土) 午後一時 本 大學院
五、試驗科目：專攻·英語 및 面接
電話(直) 261-3256、(交) 267-8131~9(215)

東國大學校

各大學院 學生募集

一九八二年度 後期 新入生募集을 다음과같이 公告함

개강 每月1日 (주·야간)
公務員·資格試驗 대비 專門
司法試驗·行政高試
·綜合班·單科班 2個月完成
저녁 18:30~22:10 수시접수가능
憲法·國史·英語·民法·刑法 行政法·行政學·財政學·會計學 經濟學·刑訴法·民訴法·商法
公認 鑑定士
稅務士·會計士
各種 資格試驗對備 綜合講座
會計學·財政學·經濟學·民總·稅法 商法·英語·簿記·鑑評
每日 19:00~22:30 單科受講可
公務員·취직·해외유학
大學院
TOEFL 李在玉 著 白鍾岩특강
每週:月火水木 16:30~18:00
綜合英語 李南秀 直講
새벽반:每日 07:00~08:30
낮반:09:00, 14:00, 16:00
저녁:18:00~19:30, 19:40~21:00
每日 프린트 제공·日曜補講
公務員講座專門
行政考試學院
종로2가 화신옆 안국동쪽 50m
724~9484, 723~6841 722~3853

군·행정병 모집 안내
자격=각군17~26세 고졸이상 (해군 특전=복학시기조절가능, 각군전역후 입대 ※각군위촉학원(교련혜택받음) 중졸이상)
관인 인성서예차드학원
서예도안 차드펜글씨
▲각군위촉학원 ▲수료증 ▲개인지도 ▲각종 서예 도안 ▲초보자환영 ▲1개월 완성 ▲취업보장 ▲직접지도 ▲무료수제 ▲관공서 추천 ▲기초부터 ▲기술직 ▲해외진출 ▲기초부터
(725)5346
(722)3771

軍·행정병 모집 안내
●만17~25세·소정교육후행정병으로임대·공무원채용·승진시점수가산혜택
●교련단축·복학시조절가능 ●본院은 육군본부위촉 행정병양성기관임
종로1가 버스정류장 (725) 2323
서울극장옆 (725) 9716
●유학생을위한 논문타자
●취직대비자를 위한 교양타자
●해외유학·이민·취업하실분 1개월 완성속성지도
외대타자감사 직접지도
●최신형美製S·C·M타자기보유
官認 유니타자학원 大學교양打字

體育敎師敎育의 問題와 改善方案

〈師範大교수·體育敎育〉
安 檍 均

○ 복잡다난한 現代社會에 살고있는人間들은 社會의 역기능을 발하는 物質的 메카니즘에 自身들의身體를 내던지고 있기에 여기에 身體를 단련과 스트레스해소의 결정적 요인으로 대두되는 체육의 諸문제및 개선방안을 알아보다. 아울러 本 논문은 지난달29日 師範大 체육교육 학과에서 주관했던 교육문제 심포지움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임을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註>

I. 序

未來學者 Toffler에 의하면 現代社會는 그 무엇보다 變化(Change)라고 강조하였다

人口의 增加, 생활양식, 건강, 음식, 습관, 에너지와 自然資源, 通信工學技術등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분야에도 큰변화가 올것을 예측할 수 있다. 즉 개인의 能力, 自發學習, 平生敎育, 校外敎育, 가정과 학교 관계의 유형변화 조기교육, 성인교육, 지역사회정신에입각한 교육, 전문지식교육, 人間과 生物圈의 환경 사이에 균형유지교육, 교수방법의 올바른성 등의 강화를 지적할 수 있다.

급속한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体育分野도 새로운경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테면 폭발적인 과학지식의 도입 내지 응용, 교육과정 작성의 변화, 보다 많은 大衆이 스포오츠 전반에 걸쳐 여건을 갖고 參與增大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8서울올림픽의 國家的 大課業, 체육진흥강화, 스포오츠 當面課題 상등 체육분야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일들이 많이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성공적으로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体育發展의 根幹이 되는 學校体育의 정상화 단계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學校体育의 성과는 그 교육을 主導的으로 수행하는 体育敎師의 資質 여하에 달려있다고 할 수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体育敎育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절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体育 敎師 敎育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이와같이 중요한 교사교육문제하에서 우리는 교사교육에 관심을 갖고 보다바람직한 교사교육을 위해서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교사교육 담당자의 소양이나 자질에관한 연구, 교사양성을 위한 시설 혹은 매체에관한 연구, 교사교육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연구, 교사양성교육과정의 조직에관한 연구, 그리고 정책적지원조건에 관한 연구등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관련을 갖고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체육교사교육문제는 모든 교사교육문제의 범주에 속할수있는 사항들이 많다. 때문에 가능한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고찰을 省略하였다.

2. 體育敎師의 資質

体育敎師가 되려는 학생은 자신이 전문직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한다.

첫째, 체육교사가 되려는 학생은 건강한 체격과 체력은 물론 선천적으로 다양한 운동에 참여할수있는 운동기능소질을 갖고있어야하는것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둘째, 체육이 전교육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독립된 敎科目으로서 어느교과목보다 가장중요하다고 굳게 믿을수있는 철학적인 교직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체육학에대하여 專門的으로体系있게 연구하려는 소망과 지적 호기심의 態度, 涵養이 중요하다. 금영적으로 교사들이 現場敎育에 任하다가 기회가 있을경우 大學의 교단이나 또는 연구기관에서 깊은 연구에 참여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전문성 있는 연구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体育은 活動敎科로서 一般敎師와 달리 指導現場에서 특수하게要求되는 것이 전문적인 leader-ship 特性이기 때문에 leader-ship training 測面에서 体育敎師는 体育指導現場에서 훌륭한 leader-ship을 갖추

大衆化시대의 大學

오늘의 대학을 진단한다.

○…오늘의 大學은 「理想」과 「現實」의 갈등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또한 大學人들은 강의실에서 돌고 보는 교과서적인 현실에 모순…○
○…뭘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상반되는 삶의 길이 험난한데…○
○…대한 허탈감에 빠져들기도 한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했고, 學…○
○…園에 까지 밀어닥친 부패된 사회의 단면들이 오늘의 大學을 방…○
○…황하게 만드는 것이다。 大學은 그 본질에 있어 제자리를 잃고…○
○…변질되어 가고 있으며, 남부하는 젊음 속에 그 文化는 획일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大學新聞, 放送등 보…○
○…도매체들은 막강한 그 위치를 잃어가고 있는 것…○
○…도부인할 수만은 없는 형편이며, 情많던 師弟之間도 형식적인 관…○
○…계로 흐러가고 있는 것이다。 本紙에서는 앞에서 지적했던 大學社…○
○…會의 당면문제점들을 고찰해 나가면서 그 위치를 재정립해보고, …○
○…일부의 편견이나 인기에 휩쓸려 大衆化되어가는 오늘날의 大學을…○
○…진단해 보기로 한다。 △편집자 註△

1、변질된 本質
2、획일화된 文化
3、大學의 言論
4、大學의 位相
5、大衆化의 극복

Ⅰ、머릿말

大學의 대중화라는 말이 나온지는 그리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다。 교육개혁으로 인하여 대학인의 양적인 팽창은 불가피해졌고 그들이 구축한 문화 또한 대중화의 틀걸속에 잠식되어 획일화, 몰개성화되어 대학문화가 갖는 본래의 역할 수행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미 대중화되어 버린 대학,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추궁할수 없는 현실인을 감안할때 우리는 우리가 취하려면 자세를상기해야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문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변질된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한 문제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Ⅱ、大學文化의 正體

흔히 文化에대한 개념을 정의할때 自然을 등장시켜 그와 대조되는 고상한 정신영역의 핵심을 그것이라 규정짓는다。 좁더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創造的 精神상황이 곧 文化인것이다。

그러나 社會學이나 人類學에서 일컬어지는 문화는 단순한 생활양식 그것의 책임은 누구에게도 추궁할수 없는 현실인을 감안할때 우리는 우리가 취하려면 자세를상기해야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문화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변질된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한 문제와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하는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Ⅱ、大學文化의 正體

흔히 文化에대한 개념을 정의할때 自然을 등장시켜 그와 대조되는 고상한 정신영역의 핵심을 그것이라 규정짓는다。 좁더 잘 다듬어지고 세련된 創造的 精神상황이 곧 文化인것이다。

그러나 社會學이나 人類學에서 일컬어지는 문화는 단순한 생활양식 그것이 아니다。 문화는 단순한 생활양식 그것이 아니다。 문화는 단순한 생활양식 그것이 아니다。

난무하는 구호와 슬로-건

"무절제한 구호의 남발 個性없는 人間像 창출"

획일 아닌 질서의식 고취 계기도 "전시 효과 중심 지양해야" 自律의식 해칠 우려 있어

「올해 륙가는 한자리수로 잡겠다」라는 정부의 경제적목표 슬로건을 비롯하여 작게는「책임있는 가르침과 믿고따르는 수용자세」라는등의 여느고등학교정문에 붙어있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말하여 실추된 교권확립위한 슬로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구호 및 슬로건의 홍수속에서 살고있다.

구호와 슬로건, 모두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매개체로 하여 和合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의도만들생각하고 사용하다보니 그것이 우리사회에 난무하는것도 사실이며 역갈정을 갖게되는 경우도있다.

말 많은 社會에 살고있는 우리는 시내 어디를 가나 플렉카드를 볼수있으며배움의장소인학교선는 잘다듬어진 예자속의 표어를 볼수 있을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같이 난무하는 구호및 슬로건에 무단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표어는 매스컴에서 나오는 캠페인적 구호로서 영상과 음향을 통해 구호와 슬로건을 머리 속에 넣고있는 것이다.

◇각종구호와 슬로건은 모두 옳은 얘기를 담고 있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국민적 의식기반에 커다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수용소문도에 사는 북한동포를 구원하자」라는 구호는 우리의귀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 구호는 얼마전 美 일간지에서 북한의 정치적 진상을 조사하여 기사화함으로써 등장한것으로 우리에게는 소련의작가 솔제니친의 저서를 연상케하는 느낌마저 주고있다.

이렇게 우리사회 곳곳에는 국민의 단결과 정단의 의지를 표현하는 구호가 있지만 곡 의도

어떤 의미에서 구호및 슬로건은 그 時代의 表像이라 할수도 있겠다.

우리가 조소어린눈으로 바라보는 자유당시절의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등의 정권획득 야욕에서 나온 구호와 이에 맞서 나오는 「갈아봤자 별수 없단」등의 구호는 그 시대의 알륵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적, 상업적 구호는 경쟁단체및 개인간에 많이 사용되었다.

우리는 「민主主義는 피나서 먼해가 피똣이 많은 해로운 점보 야기시켰는데 더우기 우리나라같이 통일된 제복과 두발로 (물론 얼마전에 자율화는 되었지만) 주입식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의 남부하는 구호및 슬로건은 인격형성층에있는 젊은층의 사고를 경직시켜 획일적인간으로 만들뿐이며 그것이 확대되어 간다면 최고 학부를 나와도 수동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므로 어떤 집단의 구성물로밖에 존재할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하기도 한다.

지난시절 창조성이 결여된 이같은 집단의 창출은 주는 지식을 여과 없이 슬기하는 식의 교육과, 사회에서 보는 지시적이고 짐약된 구호 및 슬로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두뇌를 사용치않는데서 오는 병폐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민족이 확고한 자아의식이 가능치 못했던 봉건시대의 폐쇄적 신분사회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했기에 오는 결과이겠지만 여하튼 우리사회가 그 옛날 조상님들의 창조적이고 개성있는 사고방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주입식교육에서오는 가치관이 정립되지못함과 빈번히 발생했다 사라지는 구호및 슬로건에서오는 기존가치관의 혼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人類歷史의흐름이人間 自由화 개성의 존중을 확대해오는 과정이라할때 지난시 구호및 슬로건의 남발에서오는 피동적인 인간상의 출현은 歷史的흐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며 인간정회복이라는 근대적 정신에도 피리가 있다 할수 있겠다.

또한 서구사회의 제도적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찬양적 구호 및 슬로건은 물질문명의 지나친 숭배에서오는 일종의 사대주의적사고방식으로 이같은 것을 비판없이 받아들인다면 개성이없고 창조성이 결여된 군상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마침내 예기치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 선 記者>

표현된 文句, 時代相 반영해

한대로의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한것도 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유신과업 이룩하여 발전한국이룩하자」라는 한때 귀가따갑도록들어왔던이구호는 그의도는 상당히 좋은 것이었으나,그러나 「유신과업」이라는 전제적조건 때문에 우리의 시야에서 떠나게 된것이다.

이렇듯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형식적 구호가 우리사회에는 지나치게 많으며 그러기에 구호및 슬로건의 홍수속에서 살고있는 우리의 가치체계에 혼란이 야기되는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民主主義는 피나서 먼해가 피똣이 많은 해로운 점보 야기시켰는데 더우기 우리나라같이 통일된 제복과 두발로 (물론 얼마전에 자율화는 되었지만) 주입식교육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의 남부하는 구호및 슬로건은 인격형성층에있는 젊은층의 사고를 경직시켜 획일적인간으로 만들뿐이며 그것이 확대되어 간다면 최고 학부를 나와도 수동적인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므로 어떤 집단의 구성물로밖에 존재할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하기도 한다.

지난시절 창조성이 결여된 이같은 집단의 창출은 주는 지식을 여과 없이 슬기하는 식의 교육과, 사회에서 보는 지시적이고 짐약된 구호 및 슬로건으로 인하여 그들의 두뇌를 사용치않는데서 오는 병폐였던 것이다.

물론 우리민족이 확고한 자아의식이 가능치 못했던 봉건시대의 폐쇄적 신분사회속에서 살아왔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했기에 오는 결과이겠지만 여하튼 우리사회가 그 옛날 조상님들의 창조적이고 개성있는 사고방식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주입식교육에서오는 가치관이 정립되지못함과 빈번히 발생했다 사라지는 구호및 슬로건에서오는 기존가치관의 혼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人類歷史의흐름이人間 自由화 개성의 존중을 확대해오는 과정이라할때 지난시 구호및 슬로건의 남발에서오는 피동적인 인간상의 출현은 歷史的흐름에 커다란 저해요인이며 인간정회복이라는 근대적 정신에도 피리가 있다 할수 있겠다.

또한 서구사회의 제도적구조에 대한 무분별한 찬양적 구호 및 슬로건은 물질문명의 지나친 숭배에서오는 일종의 사대주의적사고방식으로 이같은 것을 비판없이 받아들인다면 개성이없고 창조성이 결여된 군상으로 사회가 이루어져 마침내 예기치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남 선 記者>

西歐前衛미술의 전개

전위 예술은 그동안에 일부가 쌓아오고 의지해 온 문명에 대한 회의와 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근대과학의 발달로 인한 산업혁명과 세계제1차대전의 커다란 충격이 돌고온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과학적 합리주의에 대한 완강한 희의를 지니기 시작한 현대인은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대한 성찰을 시작하고 인간의 본질적 實相을 파악하는 작업에 나서기시작했다. 轉換期의 첫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전환기의 변혁이라는것은 대단히 복잡하면서 더욱 갈짝스러운 양상을 띠어 미술관의 관람자들 뿐만 당황케 만들었다. 『현대미술은 왜 이렇게 어렵지? 도무지 뭘 그렸는지 알길이 없는데…』 前衛니 實驗이니 하는 타이틀이붙은 여진 전람회장에서 흔히 들는 얘기다. 달아매고 붙이고, 뜯어내고, 부수고, 흐트러뜨리고 하는 작가의 의도를 도무지 알길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본인의 無知에 지면 걸을 먹고 이해하기 곡 포기하는 것인지는모르겠지만 하여간 현대미술은 수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때문에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오 고운 필연적 결과인지도 모른다.

과학적 합리주의에 대한 완강한 회의를 지니기 시작한 현대인은 자 다계트가 되기도하였다. 그럴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위니 실험이니 하는 미술은 戰後(2차대전) 20년간 혼황을 누려 이제 보하였고 이제의 전위라는 고 하는, 이를테면 포프아트나 누보레알리즘을 전 에 와서 갑작스레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 연원은 1910년 이상 아트의 등장은 이 대의 찬딘스키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이 경향이 엄격한 조형요소를 강조해준 이지적 추상의 작가군에 비해 전후의 젊은 세대의 작가들에 의해 신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이성의 지배와 아카데믹한 함정에서 벗어나 본능적인 감각의 해방에서 자유를 구가한 점은 세대의 감수성에 이 새로운 추상의 열기가 쉽게 그 전파력을 발휘할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5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추상표현주의에 대한 반동과 새로운 모색의 기운이 점고되기 시작하였다. 추상표현주의의 발전적 극복으로서 행위의 제기를 중시함해 프닝의 등장과, 즉흥성을 통한 물질감의 강조가만 들어낸 앵상블리즈가 추상표현주의 이후를 대표해서 하나의 뚜렷한 흐름을 형성한다. 60년대에 들어 오면서 즉물적이고 서정적인 추상표현의 오소에 반동한 色面抑象—後期회화적 추상과 추상 표현주의의 행위의 부한성을 오브제의 완결성으로 두복해보이려는 점바 Artand Technology—예술과 과학기술에 의한 포프 아트에 의해 개발된 현실풍자와 색채추상의 명료성에 의한 객관성의 새로운 인식이 잔인할 정도로 예리한 현실묘사를 가져오게 했으며 여기에 沒個性이 그 특성을 유지한다. 하이퍼리얼리즘 또는 포토 리얼리즘등이 대체로 사진에 의한 정밀한 확대적 묘사를 시도하고 있음도 극도의 객관성을 시사해보일이다.

이상과 같은 그 전개의 간략한 기술을 통해서 느껴지는것은 활기에 찬 혼탄의 시대라고 표현할만큼 현대 전위미술은 생동감있는 팔방굴을통해 분명히 이시대를 장악했다.

그러나 그것은 활황의 시대를 맞아 변질되고있고 또 의식의 천이화에서 이루어진것인지라 자아의 정변에 서었는듯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한계를 절감케 한다.

이렇게보면 그 가능성은 열려 있기도하고 닫혀있기도 하다. 열림으로 나가는 길은 불경기시대에의 적절한 대처와 아울러 진흥방안에서 헤메고 있는듯한 오늘날의전위미술을 구제할 수 있는 로고스의 도래인 것이다.

전위미술이 기왕에 보여준 활기찬 조형기의 지속성을 믿으면서 금후의 전개에 주목한다.

◇최근 한국예술계에서도 「전위」라는 단어가 심심치않게 나오고있다. <사진은 80년에 본교 미술과 학생들의 해프닝 연출 광경>

文明에 대한 회의와 좌定에서부터 출발 "활기찬혼란"生動하는表現으로탈바꿈

사 석 원
<물교대 미술학과>

유월의 노래

金 中 羽

I

저녁마다 마셔도 목말라
가난한 그 형제들 어디가 샘이냐고,
절벽마다 졸지어
어둠 틈질해 볼 밝히고,
흙 묻어 나르고 칡내음 몸에 두르며
어느 하늘 기다리나

세상 어느 門도 열지않고
굳어져 물이 되고 부숴져 흙이 되고
끝내 얼음 속에 갇혀
서러워라 그네들 꽃으로 불러주
그네들 江으로 불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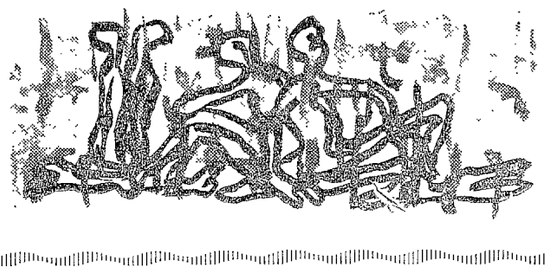
II

아우성 소리와 우는 소리, 들과 부딪혀
나무는 太陽이 되고, 정말 우리 그 붉은 물 깊이, 창자와 뼈를 뚫고 예감의 불들불들이 설움으로 자랄때 우리구리털 수염잘려도 다시 침묵으로 녹아도, 자유하리라. 폭포와 같이 산맥과 같이 자유하리라.

III

앉은뱅이 질경이풀 일어나라. 무서운 날, 발과 고랑의 사이에서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 아픈곳 서로탕아
바다가 깨어지고 언덕이 깨어지고
깨어지는 별들, 깨어지는 물들
바위에 비내리고 구름위에 비내려
상처깊은 그 땅에 그 새들
太陽을 심어놓고, 젖어서
호수와 산을 지나 아무리 먼곳에서
작고 미세한 벌레가 될지라도,
앉은뱅이 질경이풀 일어서라, 바람은 잠자라.

<文理大 國文科>



메아리

貧益貧 시대

▲열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헨티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영토분쟁은 전쟁을 시작한지 한달이 가까와도 승패의 윤곽이 드러나는 기미도 없으며 그 결과는 아직 어느 정치가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다. 영국은 열국대로 찬탄했던 옛날을 되살리기나 하려는지 한 날에 수천만원씩이나 하는 포탄을 마치 고들이나 버리듯 포클랜드에주둔해있는 아르헨티나軍에게 마구 쏘아댔으며, 아르헨티나는 그들 영토였던 그 땅을 다시 찾으려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한다. ▲지구상에는 본래 남의 땅이었으나 무력이나 경제력을 앞세워 강대국의 영토를 희롱하려면의 소위 「식민지」라 불리는 곳이 많이 있어왔다.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커다란전쟁으로 인해 많은땅들이 독립을 하였고, 이제 몇군데만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얽혀 아직 그들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포클랜드 사태」에서도 보듯 아르헨티나의 엣날 그들 영토를 희롱하려면의 지는 美國을 비롯한 세계 열강들의 일방적인 親英분위기로 인해 좌절될 단계에 있으며 뜸없는나라 아르헨티나의 영토에 대한 주권회복의 꿈은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춤은 범위에서 벗만아니라 넓은 세계에서마저도 잘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부슨 이유에서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포클랜드사태」가 보여준 국제관계에 있어서 커다란 교훈이라 하겠다. 얼마전 프랑스 메르사이유궁전에서 초호화판으로 열렸던 이른바 「석발7개국 정상 사진찍기」에 있어 U N의 기능은 점차 강대국의 입김에 흔들리고있는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국제관계에 있어 「富益富 貧益貧」이 현실이 전제라는 슬픈 현실로 해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우리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제적이해관계는 한반도라고 해서 그 영향권의일수만은 없다는 사실에 있다하겠다. 옛부터 내려오는 우리 경제 절서는 중산층을에게만 뜨거운 추배료되어 왔던 것도 과거 우리의 실정이었기때문이다.

〈博〉

趙泰昂 著 새책안내

민족과 조국에 대한지조와 대의를최상의 윤리로삼아평생을 일관했던趙泰昂씨의思想과 論理가 집약된 문집이 한길사에서 「한국근대 思想家 選集」제6권으로 간행되었다.

「분단시대의 私學」의 중진인 강만길교수가 고증을 거쳐 엄선한 60여편의 선언문, 강령, 연설, 논문, 수필등은 식민지시대 민족운동의 한 탁월한 이론가의 모습과 그 사상적 핵심인 三均主義의 본질을 새롭게 부각시키고있다.

임시정부측의 논리, 조소앙의 사상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없는 우리 학계에서 이책은 좋은 자료집과 개론서의 역할을 겸할수 있을것이다.

<한길사刊·334面·값3,600원>

숨기고 싶은 이야기 許萬雄著

지난 79년에 「파도에게 묻는 말」을 펴낸바 있는 著者가 이번에 새로운 스타일의 옛세이집 「숨기고 싶은 이야기」를 펴냈다.

『한편의 作品은 자기것이면서도 어떤 의미에선 자기의 것이 아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에 서서 이 글을 썼다』고 말하고 있는 저자는 일상생활에서 느낀바를 일기형식을 빌어 차분하고 담담하게 써나가고 있다.

<삼일서적刊·265面·값2,500원>

過慾時代 최범훈著

국문과 同門이며 현재 본교에 출강하고 있기도한 저자가 이번에 두번째 수필집 「過慾時代」를 펴냈다.

이책은 평소 저자가 청탁받았던 글을 모은 것인데 저자특유의 사물감각과 위트가 군데군데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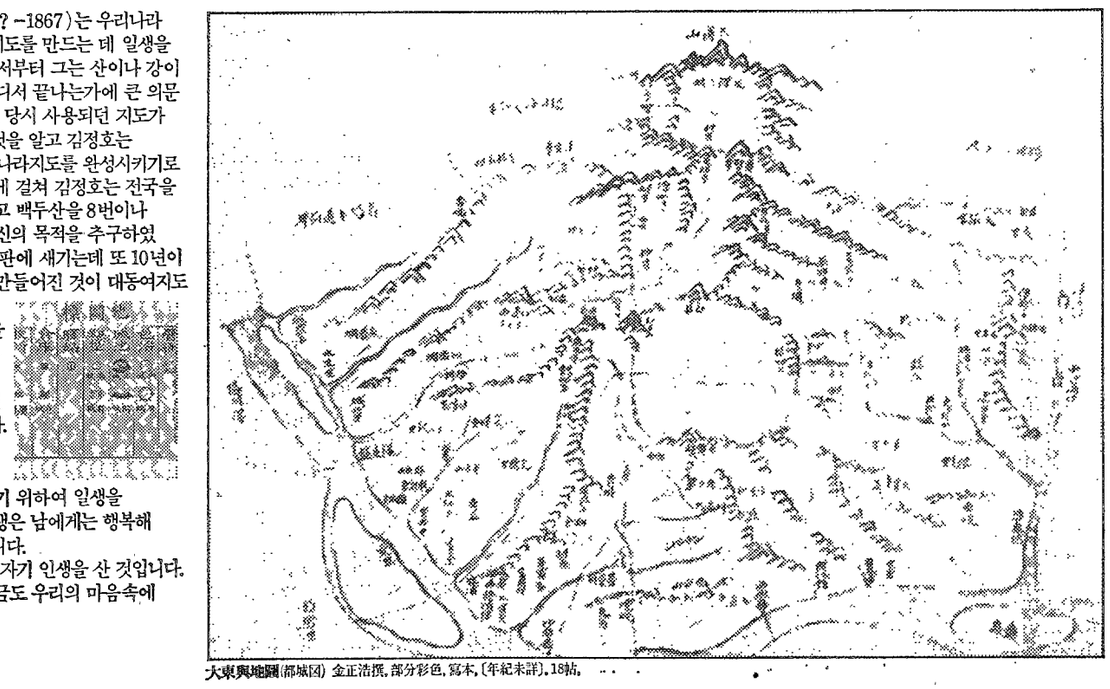
주로 일상생활주변에서 얻은소재로 담담하게 그려나가고 있는 이책은 하루하루가 바쁜 현대인에게 좋은 생활 활력소가 될것으로 보인다.

<三硏社刊·263面·값2,500원>

무엇을 위해 살것인가?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김정호(?-1867)는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 데 일생을 바친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산이나 강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에 큰 의문을 가졌읍니다. 당시 사용되던 지도가 사실과 틀린것을 알고 김정호는 스스로 우리나라지도를 완성시키기로 하였읍니다. 20년에 걸쳐 김정호는 전국을 3번이나 답사하였고 백두산을 8번이나 올랐읍니다. 끈질기게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였읍니다. 수집된 자료를 목판에 새기는데 또 10년이 걸렸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동여지도입니다. 우리나라를 22층으로 나누고 날줄·씨줄을 그은 세밀한 지도를 만든 것입니다. 김정호가 지도 제작에 뜻을 세운지 30년이 지난 1864년이었읍니다.



大東輿地圖(部城図) 金正浩撰, 部分彩色, 寫本, [年紀未詳], 18帖.

김정호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오직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일생을 바쳤읍니다. 김정호의 일생은 남에게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행복한 자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김정호의 젊은 열정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끓고 있읍니다.

인생은 생각하는것 처럼 길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일생을 다바쳐도 주어진 시간안에 그 목표에 도달하는 행복한 사람은 별로 많지 못합니다.

젊음 또한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금은 한없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마치 놓쳐버린 특급열차 처럼 우리에게서 멀어져갑니다.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살을 조금씩 잘라서 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세우십시오. 확고한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 나라,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추구하십시오. 젊음은 그런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당신의 젊음을 영원한 것으로 승화시키십시오.

SSANG YONG 쌍용

●쌍용양회/시멘트·레미콘 ●주식회사쌍용/종합무역
●쌍용정유/정유·윤활기유 ●쌍용중공업/중·소형 디젤엔진
●쌍용종합건설/국내외 종합건설 ●쌍용제지/크라프트지·가정용위생지
●쌍용해운/해운 ●고려해상화재보험/보험